

# 원희룡 장관, 한-사우디 협력관계 공고화

## -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만나 인프라 협력 중점 논의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8(수) 스위스 다보스에서 칼리드 알-팔레(Khalid A. Al-Falih)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네움 철도, 모듈러 주택, 스마트시티 협력 등 최근 양국 간 커다란 진전을 이룬 성과를 짚어보고, 양국 정부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더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.

\* 스위스 다보스 현지시각 1.18(수) 08:00

사우디측 참석자 : 투자부 장관(Khalid A. Al-Falih), 투자서비스실장(Ammar Altaf), 국제협력실장(Awadh Mashni), 투자지원실장(Abdulmajeed Albadrani) 등

○ 이날 면담은 세계경제포럼(WEF)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에 방문한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양국 간 인프라 투자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원 장관은 “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와 민간기업 대표단의 사우디 방문에 이어 사우디 왕세자님 방한으로 양국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”면서, “오늘 칼리드 알 팔레 장관님과 만나 양국 협력 증진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어 매우 뜻깊다”라고 인사말을 전했다.

○ 이어 원 장관은 “지난 11월 왕세자님 방한 시 영예수행으로 양국 협력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 프로젝트 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”면서, 그간 네움 철도협력(현대로템-사투자부) 및 모듈러 주택협력(삼성물산-사국부펀드) MOU 체결 등 주요 성과를 칼리드 알 팔레 장관과 공유하였다.

○ 아울러, “지난 11월 합의를 시작으로 협력분야를 스마트시티, 모빌리티 분야로도 확대해나가고, 기존 체결된 MOU 이행을 위해 공동 투자방안을 모색하는 등 본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의 속도를 높여가야 할 때”라고 강조하면서,

- “한국은 사우디 ‘비전2030’ 중점 협력국인만큼, 정부와 민간이 함께 네트워크를 보다 밀접하게 구축하고 양국 미래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을 구상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기를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
- 이에, 사우디 칼리드 알-팔레 장관은 “지난 사우디 왕세자 방문 시 영예수행했던 원 장관은 이미 사우디에서도 유명 인사라며 본인이 앞으로 원 장관의 현지 대표 역할을 하겠다”고 화답하고,
  - “한국과 건설 인프라는 물론, 디지털 인프라,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
- 한편, 원 장관은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세계경제포럼(WEF)의 UAM, 新 모빌리티, 스마트시티 관련 세션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한다.
  - 특히, 19일에는 사우디 정부가 주최하는 “**Toward a Resilient Urban Resource Nexus**” 세션에 참석하여 한국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한 도시 회복탄력성 증진 사례를 공유할 계획으로 양국 협력 선도 사업을 발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.

2023. 1. 18.

국토교통부 대변인